엄숙한 자백

공적인 죄와 언약 위반에 대한 엄숙한 자백.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모든 의무, 곧 이 시대의 위험에 더욱 특별한 방식으로 관계된 의무들에 대한 엄숙한 다짐.

아울러

10월 6일자 총회 위원회의 두 법령: 엄숙한 동맹과 언약을 갱신하기 위한 법령과,

최근의 불법적인 협약에 가담한 자들이 언약을 갱신하는 것과 성찬을 받는 것과 교회 직분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법령, 성찬 거행에 관하여 노회들에 준 그들의 권고와 더불어.

또한 이와 함께,

동맹과 언약을 갱신하기 위한, 10월 14일자 신분 위원회의 법령.

에든버러, 지극히 탁월하신 왕 폐하의 인쇄업자 에번 타일러가 인쇄함, 1648년.

I - 서문

공적인 죄와 언약 위반에 대한 엄숙한 자백: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모든 의무, 곧 이 시대의 위험에 더욱 특별한 방식으로 관계된 의무들에 대한 엄숙한 다짐.

우리, 곧 이 왕국 안에 있는 귀족들과 남작들과 신사들과 시민들과 복음의 사역자들과 각계각층의 평민들은,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겪어 온 많은 슬픈 고난과 깊은 곤경을 진지하게 숙고하며, 또한 이 땅이 칼과 역병으로 심히 황폐하게 되고 기근으로 위협을 받은 후에, 그의 종들의 증언과 그의 백성의 소원을 거슬러 죄악된 방식으로 잉글랜드 왕국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킨 우리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 위에 주께로부터 수치와 멸시가 부어졌음과, 그 군대의 남은 자들이 이 땅으로 돌아와 우리 형제들 가운데 많은 이들을 약탈하고 압제하였음과, 악의적인 자들의 당파가 여전히 수가 많으며 그들의 이전 원칙을 그대로 지닌 채, 이 왕국의 창자를 찢을 뿐 아니라 우리를 잉글랜드로부터 갈라놓고 세 왕국 모두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뒤엎기에 이르는 새롭고 위험한 전쟁을 일으킬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숙고하며: 또한 재앙의 구름이 여전히 우리 머리 위에 드리워 앞으로 올 슬픈 일들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아울러 숙고하므로, 우리는 이 일들을 그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신 주께로부터 온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없으니, 그는 우리가 그와 맺은 맹세와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그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쓴 일인지를 알도록 배우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길의 악을 버림으로써 그 앞에서 겸비하게 되기까지, 우리에게 눈물의 떡을 먹이시고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토록 큰 궁핍과 곤경에 눌려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증되고, 또한 옛적 하나님의 백성의 본을 가지고 있으므로(그들은 환난의 때에, 그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구원과 바른 길을 구하여 주께서 그들과 함께하사 그들을 형통하게 하시기를 바랄 때에, 그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그들의 군주들과 그들의 통치자들과 그들의 지휘관들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백성의 죄를 거리낌 없이 낱낱이 고백하였으며, 다시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길을 개혁하며 그의 언약에 굳게 서기로 스스로 다짐하였다); 또한 1596년 우리 선조들의 행실을 기억하니, 그해에 총회와 모든 교회 치리회는 귀족과 향신과 시민의 많은 이들의 동참과 더불어, 많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국가 언약의 위반을 자백하고 개혁에 스스로 다짐하였으니, 이는 우리 선조들과 그들의 선조들이 1567년 총회와 신분 대회에서 이전에 행하였던 것과 같았다; 또한 이 의무가 양심에서 우러나 진실함으로 행하여질 때에는 언제나 고난에서의 소생과 하늘로부터의 복과 형통이 뒤따랐음을 깨달으므로; 우리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의 목전에서와 같이, 겸손하고 진실하게 이 땅의 많은 죄와 큰 범과를 자백하노라; 우리가 악을 행하였으니,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군주들과 우리의 귀족들과 우리의 재판관들과 우리의 관원들과 우리의 교사들과 우리의 백성이 그러하였도다: 주께서 오래도록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지라도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고, 그가 인자한 긍휼로 우리를 따르셨을지라도 우리는 이끌려 그를 앙망하며 그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우리를 치셨을지라도 우리는 아파하지 아니하였고: 아니, 그가 우리를 멸하셨을지라도 우리는 징계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우리는 그의 선하심을 따라, 그리고 우리 자신의 서원과 약속을 따라 주께 갚기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배역의 행로로 뒤로 물러갔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맹세한 그 엄숙한 동맹과 언약의 모든 조항을 깨뜨렸도다.

Ⅱ - 죄의 자백

비록 이 땅에 모든 계층의 많은 이들이 있어, 경건하게 살고 자기 옷을 깨끗하게 지키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언약과 대의에 굳게 섬으로써 진리에 대한 증거가 되고 주께 기쁨과 찬송의 이름이 되고 있으나; 우리는 우리 대부분이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개혁의 사역을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합당하였던 그 실제성과 진실함과 항구성으로 힘쓰지 아니하였음을 자백할 이유가 있도다; 많은 이들이 규례의 순수함에 만족하고 그 능력을 소홀히 하였으며; 참으로, 어떤 이들은 둘 다를 파괴하는 굽은 길로 치우쳐 갔도다. 잉글랜드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 갔던 우리 군대 가운데 많은 이들의 세속적이고 방탕하고 오만한 행실과, 런던과 와이트 섬과 그 왕국의 다른 곳들에서 우리 위원들 가운데 어떤 이들과 우리 민족의 다른 이들이 행한 뒷거래와 곧지 못한 처사가 그곳에서 개혁의 사역과 교회 정치의 확립에 큰 방해가 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오류와 분열이 늘어났고 분파주의자들이 그들의 길에서 완악하게 되었도다. 우리는 세속성과 경건의 능력에 반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하여 힘쓰기는커녕, 세속성은 크게 묵인되었고 세속적인 자들은 크게 두둔되었으며 여러 번 기용되기까지 하였으니, 마침내 죄악과 불경건이 홍수같이 이 땅의 표면을 뒤덮었도다; 아니, 이 교회의 규례에 따라 모든 무지한 자와 추문을 일으키는 자를 성례에서 금함으로써 귀한 것과 천한 것을 구별하는 일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또한 의회의 특권과 신민의 자유도 마땅히 소중히 여겨지지 아니하였으니; 오히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둘 다를 파괴하는 자의적이고 무제한적인 권세를 우리 왕의 손에 쥐여 주려고 애썼으며,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은 최근에 의회의 자유와 특권이 침해되고 신민들이 그들의 양심과 몸과 재산에 있어서 압제를 받게 된 그 수단과 방법에 가담하였도다: 또한 우리는 왕을 그의 악한 길에서 완악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피하려고 유의하지도 아니하였으니; 도리어 그는 종교와 언약과 이 왕국들의 평화와 안전에 해를 끼치는 여러 일에서 그의 권세를 행사하도록 허용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도다; 이것은 폐하의 옥체와 권위를 보존하는 바른 길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어서, 그 둘을 위태롭게 하기까지 주를 격동하여 그를 대적하시게 하지 않을 수 없도다. 아니, 왕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필요한 일을 행하기를 거부하는 동안에, 왕을 구하고 왕을 위하여 행한다는 구실 아래, 어떤 이들은 언약의 조항들 거의 전부를 뒤엎고 범하였도다.

안으로는 우리 자신의 양심이, 밖으로는 우리 위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악의적인 자들의 색출과 처벌에 관한 그 조항을 우리가 여러 번 고의로 거듭 위반하였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나니, 그들의 범죄는 묵인되었을 뿐 아니라 면제되고 사면되었으며, 그들 자신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 안으로 받아들여졌고, 우리의 협의를 위임받았고, 우리의 의회에 받아들여졌으며, 왕국의 공적인 일을 관리하기 위한 권세와 권위의 자리에 앉혀졌으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그들은 마침내 치리 기관들과 군대들에 있어서 왕국의 모든 권세와 힘을 그들의 손에 넣게 되었고, 그것을 잉글랜드 왕국을 대적하는 불법적인 교전 협약을 제정하고 수행하는 데 사용하였으니, 처음부터 그 대의에 대한 그들의 온전함을 꾸준히 증명하였던 많은 상당한 의회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많은 신실한 증언과 거리낌 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회와 노회와 주들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총회와 그 위원들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였도다: 이 협약은 많은 죄의 원인이 된 것과 같이 이 땅에 많은 비참과 재앙의 원인도 되었으며, 우리가 받은 심판의 크기에서 악의적인 자들과 영합한 우리 죄의 심각함을 우리에게 보여 주나니, 이는 주께서 그토록 현저한 봉화를 세워 두신 그 같은 바위에 우리가 다시는 부딪혀 파선하지 않도록 배우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의 이 범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모든 일 후에, 또한 이 사람들의 멍에를 우리 목에서 꺾으시고 우리를 다시 종교의 유익과 우리 자신의 안전과 이 왕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처지에 두심으로써 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후에, 우리가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백성과 다시 한 번 연합함으로써, 그리고 이전에 우리를 거의 죽기까지 물었던 그 뱀들을 우리 품에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계명과 언약을 다시 깨뜨려야 하겠느냐: 이것은 우리 편에서 큰 광기와 어리석음을 드러낼 것이요, 그와 같이 틀림없이, 만일 피하지 않는다면, 주를 격동하여 우리를 대적하사 이 땅에 남은 자도 없고 피할 자도 없기까지 우리를 멸하시게 할 것이로다.

또한 비록 왕국들 사이의 평화와 연합이 양쪽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며, 우리가 침해되지 않게 보존할 의무가 있고, 그것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공의가 시행되도록 힘써야 할 유대일지라도; 이 땅에서 언약의 유대 아래 들어왔던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하면 이 연합을 해체할 수 있을지를 그들의 큰 궁리로 삼았으며, 그러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누구도 거의 혹은 전혀 힘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이 땅의 여러 지역에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공동의 원수에게 압제를 받도록, 긍휼이나 구제 없이 내버려 두었도다; 우리의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재물과 수고를 들이는 것 때문

에 큰 원망과 불평이 있었도다; 많은 이들이 설득이나 공포로 말미암아 스스로 갈라지고 물러나 반대편으로 이탈하였으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 왕국들의 유익에 그토록 관계된 이 대의에 있어서 가증한 무관심과 중립으로 돌아섰도다; 아니, 많은 이들이 모든 시대와 그 모든 변전에 영합할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을 그들의 궁리로 삼았도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사랑하고 그것에 마음을 둔 자들만을 두둔하고 격려하고 신임하고 기용하는 일에 유의하지 아니하였으니; 도리어 그러한 이들의 마음은 여러 번 낙심되었고, 그들의 손은 약하여졌으며, 그들의 고난은 등한시되었고, 그들 자신은 멸시를 받았으며, 한때 공공연한 원수였고 언제나 은밀히 뒤엎는 자였던 많은 이들이 두둔되고 기용되었도다; 아니, 방화범으로 여겨졌던 자들, 그리고 주께서 절망적인 악의와 거짓과 속임의 표를 찍어 두신 자들조차 공적인 일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로서 끌어들여졌도다; 주의 사역을 지연시키고 막기 위하여 그 길에 던져진 방해와 장애물이 많았으며, 어떤 이들은 자기 힘으로 억누르고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을 숨겨 두었도다.

그 내용에 있어서 언약의 조항들에 대한 이러한 위반들과 다른 많은 위반들 — 우리가 그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돌이켜지기를 바란다면, 우리 각 사람이 주 앞에서 찾아내어 자백해야 마땅한 것들 — 외에도;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은 그 안에 담긴 의무들을 따르고 추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심히 실패하였으니, 우리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구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과 친구들과 추종자들에 관한 사사로운 이해관계와 목적을 공공의 선에 관한 일들과 뒤섞었으며, 도리어 여러 번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대의의 유익보다 앞세웠고, 우리 자신의 이해관계와 계획을 함께 가지고 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지연시켰도다. 방편을 신뢰하고 성공을 위하여 육신의 팔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었도다; 비록 주께서 그 일에 있어서 여러 번 우리로 하여금 실망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육신적 의뢰를 시들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셨을지라도 그러하였도다: 우리는 대부분 혈과 육의 계략을 따랐으며, 경건보다는 정략의 법칙을 따라 더 많이 행하였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이 귀를 기울였도다.

비록 우리가 세상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와 이 왕국들의 죄로 인하여, 특별히 우리가 복음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소홀히 여긴 것과, 그 능력을 위하여 힘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지 아니하며 우리 삶에서 그에게 합당하게 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주 앞에서 겸비하게 되고자 하는 우리의 거짓 없는 소원을, 그리고 우리 자신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우리의 권세와 책임 아래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의무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고치고, 참된 개혁의 본을 각자 서로 앞서 보이려는 우리의 참되고 거짓 없는 목적과 소원과 노력을 엄숙하게 공적으로 고백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의 진노와 맹렬한 분노를 돌이키시고 이 교회들과 왕국들을 진리와 평화 가운데 세우시게 하려 함이었으나; 우리는 개혁되기를 거절하였고 주를 거슬러 교만하고 완고하게 행하였으며, 그의 복음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그것에 순종하도록 복종시키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리스도를 찾지도 아니하고, 그의 인격의 탁월하심에 있어서 그를 공경하기를 힘쓰지도 아니하고, 그의 직분의 효력에 있어서 그를 힘입지도 아니하였으며, 공적 규례들이나 사적 혹은 은밀한 의무들을 양심에 두지도 아니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가 이 땅에 심히 만연하도다; 귀족들과 남작들과 신사들과 시민들과 평민들 가운데 가장들의 대부분이 그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그 가정의 개혁을 위하여 힘쓰는 것을 소홀히 하도다; 또한 비록 그것이 많이 강권되었으나, 우리의 귀족들과 높은 자들 가운데 오늘날까지 스스로

그리고 친히 가정의 의무를 행하도록 설득될 수 있었던 이는 거의 없으니; 이로 인하여 그토록 필요하고 유익한 의무가 더 낮은 계층의 다른 이들에게 무시되도다; 아니, 다른 이들에게 경건과 근신하는 행실의 본이 되어야 했던 귀족과 향신과 자치도시의 많은 이들이 방탕과 방종의 우두머리가 되었도다. 비록 우리가 엄숙한 방식으로 그에게 매인 주의 백성일지라도, 우리는 오늘날까지 치리 기관들과 군대들이 흠 없고 그리스도인다운 행실과, 알려진 온전함과 인정된 신실함과, 하나님의 대의를 향한 애정과 열심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고, 권세와 신임의 자리들이 그러한 사람들로 채워지도록 하는 것을 우리의 궁리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중립적이고 무관심하였던 자들뿐 아니라 반감을 품은 자들과 악의적인 자들, 그리고 세속적이고 추문을 일으키던 다른 자들까지 신임을 받았도다; 그로 말미암아 치리 기관들은 불의와 죄악의 자리가 되었고, 우리 군대 가운데 많은 이들은 그들의 비행으로 우리의 재앙이 되어, 하나님의 대의에 큰 해를 끼치고, 복음에 큰 추문이 되며, 온 땅에 방탕과 세속성을 크게 증가시켰도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증한 일을 다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피조물을 두고 맹세하는 것, 주일을 더럽히는 것, 부정함, 술 취함, 방탕과 방종, 의복의 허영, 거짓말과 속임, 욕설과 저주, 자의적이고 제어받지 않는 압제, 그리고 지주들과 권세 있는 자리에 있는 다른 자들이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흔한 죄가 되었도다; 또한 이 모든 일 외에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범한 다른 많은 범과가 있도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자백하고 이로 인하여 겸비하게 되기를 원하노니, 이는 세상이 우리와 함께, 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수치와 얼굴의 부끄러움은 오늘날과 같이 우리에게 속하였음을 증언하게 하려 함이라.

Ⅲ - 의무에 대한 다짐

또한 긍휼을 얻는 자들은 그들의 죄를 자백할 뿐 아니라 버리기도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그러므로 우리 회개의 실제성과 진실함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우리가 지금 엄숙하게 공적으로 자백한 이 모든 범죄와, 그리로 이끄는 모든 올무와 시험을 앞으로 신중히 피하기로 결의하고 주 앞에서 엄숙하게 스스로 다짐하노라: 또한 이 일에 있어서 우리 결의의 온전함을 증언하고, 우리가 주의 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더 잘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엄숙한 동맹과 언약을 다시 갱신하노니, 이후로는 그 모든 표제와 조항에 있어서 우리가 매여 있는 모든 의무, 특별히 다음에 나오는 의무들을 양심에 두기로 약속하노라.

1. 종교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귀한 것이므로, 모든 불경건과 세속성을 대적하여 그 능력을 진전시키고 증진하는 것과, 모든 오류와 이단과 분열, 곧 독립교회주의, 재세례파주의, 반율법주의, 아르미니우스주의, 소키누스주의, 가족파주의, 방종주의, 회의주의, 에라스투스주의를 대적하여 그 순수함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과, 획일성의 사역을 추진하는 것을, 우리는 왕에 관한 것이든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든 그 밖의 누구에 관한 것이든, 모든 세상적 이해관계보다 앞서 궁리하고 힘쓸 것이다. 2. 최근에 많은 이들이 교회의 자유를 무너뜨리려고 애썼으므로, 우리는 그 모든 자유와 특권에 있어서 스코틀랜드 교회를, 어떤 구실로든 그것을 대적하거나 그 밑을 파거나 그것을 침해할 모든 자들을 대적하여 유지하고 수호할 것이다. 3. 우리는 신민들의 양심과 몸과 재산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자유를 옹호하고 유지할 것이다. 4. 우리는 왕국들 사이의 연합을 신중히 유지하고 수호할 것이며, 그것을 약하게 하거나, 잉글랜드 왕국을 침공한 자들의 죄책에 어느

정도라도 가담하게 우리를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할 것이다. 5. 우리가 언제나 우리 왕에게 충성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기를 힘쓸 것이다. 6. 우리는 악의와 불의와 죄악과 세속성과 불경건을 묵인하거나 그것과 영합하거나 그것을 두둔하기는커녕, 그러한 일들을 피하고 그것을 두둔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대의를 위하여 열심이 있고 복음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아끼고 격려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각자의 처소와 소명에서 이러한 악들을 처벌하고 억누르기 위하여 이전보다 더 효과적인 방도를 취할 것이며, 그 원인들을 제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거룩함과 의를 진전시키기 위하여 가장 좋고 가장 적합한 치료책이 적용되도록 신실하게 힘쓸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재판하고 책임을 맡을, 능력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탐욕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것과 같이, 우리의 처소와 소명을 따라, 교회와 국가 모두에 있어서 치리 기관들과 모든 권세와 신임의 자리들이, 하나님의 대의를 향한 선한 애정이 알려져 있고 흠 없고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을 지닌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되고 채워지도록 힘쓸 것이다.

또한 이전에 하나님의 맹세를 양심에 두지 아니하였던 많은 이들이 있어, 어떤 이들은 두려움으로, 다른 이들은 설득으로 그리고 비천한 목적과 인간적인 이해관계에서 그 맹세에 들어왔으나, 후에 그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써 주를 속이며 대하였음을 스스로 드러내었으므로; 그러므로 이 의무들과 그 안에 담긴 다른 모든 의무에 관하여 지금 우리의 언약을 갱신하는 우리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의 목전에서 엄숙하게 고백하노니,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맹세를 우리 위에 지는 것은 어떤 정략적 이익이나 사사로운 이해관계나 숨은 목적 때문이 아니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떤 공포나 설득 때문도 아니요, 위선적으로나 거짓되게 하는 것도 아니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우리의 의무에 대한 자각에서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것들을 부인하고 모든 사사로운 이해관계와 목적을 내려놓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대의의 유익과 그의 백성의 복리를 구할 것이며, 혈과 육의 계략을 버리고 육신적 의뢰에 기대지 아니하며, 우리는 주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의 규칙을 따라 행하며 그의 종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는 자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노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사, 우리가 교회들 가운데서 그의 은혜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의 의무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에든버러, 1648년 10월 6일. *Post meridiem.*

엄숙한 동맹과 언약의 갱신을 위한 법령.

총회 위원회는, 이 땅의 큰 부분이 엄숙한 동맹과 언약에 대한 많은 중대한 위반에 스스로 빠졌으며; 또한 많은 이들의 손이 그 안에 담긴 의무들을 따르고 추구함에 있어 해이해졌으며, 또한 그것이 처음 맹세되고 서명되었을 때에 충분한 나이에 이르지 못하였던 많은 이들이 지금까지 그 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이러한 고려와 다른 중대하고 중요한 고려들에 근거하여, 엄숙한 동맹과 언약이 이 왕국의 모든 회중에서 갱신되도록 지정하고 규정하노라; 또한 이는 큰 무게

와 중대함을 지닌 의무이므로, 목사들은 이것을 본 후에 그들의 가르침과 그 밖의 방법으로 수고하기를 힘써, 그들의 백성이 자기들이 언약을 어긴 그 일들을 깨닫게 되고, 합당한 감정과 성향으로 그 갱신을 위하여 준비되게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더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공적인 죄와 언약 위반에 대한 엄숙한 자백과, 그 안에 담긴 모든 의무, 곧 이 시대의 위험에 더욱 특별한 방식으로 관계된 의무들에 대한 엄숙한 다짐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그리고 이와 함께 보내는 이 엄숙한 자백과 다짐을 사용할 것이며, 동맹과 언약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갱신될 것이다. 첫째, 12월 둘째 주일에 엄숙한 공적 겸비와 금식을 통지하여, 그다음 목요일과 그 후의 주일에 지키게 할 것이니, 그 통지 때에 동맹과 언약과, 공적인 죄의 자백과 의무에 대한 다짐을 목사가 모든 백성이 듣는 가운데 공적으로 낭독할 것이며, 또한 백성에게 그 사본들을 구하여 그것들을 잘 알게 되도록 권면할 것이다; 그리고 겸비와 금식은 그 후의 다음 목요일에, 엄숙한 공적 자백에 담긴 언약 위반들을 그 원인으로 여겨 그것과 관련하여 지킬 것이며, 그 후의 다음 주일 역시 공적인 겸비와 금식으로 보낼 것인데, 그날의 일에 적용될 설교 직후에, 공적인 자백과 다짐을 다시 공적으로 낭독할 것이며, 그 후에 그 안에 언급된 위반들의 고백을 담고, 이 죄들에 대한 자비와, 진실함과 진리 가운데 언약을 갱신하기 위한 하나님의 힘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것이다; 그 기도 후에 목사는 엄숙한 동맹과 언약을 낭독하고, 이어서 목사 자신과 모든 백성이 그것을 맹세할 것이니, 그들은 그 안에 담긴 모든 의무, 곧 공적인 자백과 다짐에 언급되어 있고 그 안에서 고백된 죄들에 반대되는 의무들을 이행하기로 스스로 다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힘의 능력으로, 이토록 엄숙한 방식으로 지금 갱신된 그들의 맹세를 따라 그들의 의무를 행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로 마칠 것이다. 또한 이로써 규정하노니, 동맹과 언약을 갱신하는 모든 이는 그것에 다시 서명할 것이며, 이와 함께 보내는 다른 법령과 지시에 의하여 제외된 자는 누구도 그 갱신이나 서명에 허락되지 아니할 것이다.

A. 커.

에든버러, 10월 6일. *Post meridiem.*

최근의 불법적인 교전 협약에 가담한 자들이 언약을 갱신하는 것과 성찬을 받는 것과 교회 직분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관한 법령, 성찬 거행에 관하여 노회들에 주는 권고와 더불어.

총회의 위원들은, 이 왕국에서 많은 이들이 엄숙한 동맹과 언약을 그토록 크고 명백하게 위반한 후에 그것이 갱신되어야 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그것에 실제로 대적하였던 자들을, 그들의 회개에 대한 충분한 시험과 증거를 얻기 전에 너무 성급하게 언약 안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대의가 이전에 얼마나 명백히 위태롭게 되었는지를 고려하여: 그러므로 지정하고 규정하노니, 이 교회 안의 모든 노회와 목사는 각자의 경계와 각자의 맡은 곳에서, 동맹과 언약을 갱신할 때에 특별히 유의하여, 해밀턴 공작의 지휘 아래 잉글랜드 왕국을 대적하여 전쟁에 나섰던 군대에서, 혹은 래너크 백작과 조지 먼로의 지휘 아래 스털링과 그 주변에 있던 군대에서 직책을 가졌던 자나; 이러한 죄악된 행로를 추진하기 위한 어떤 맹세나 서약이나 선언, 혹은 총회가 언약을 파괴하는 것으로 정죄한 다른 어떤 맹세나 서약을 받아들이고 서명한 자나, 종교를 그토록 파괴하는 앞서 말한 협약과 복무에 가담하도록 다른 이들을 강요하거나 재촉하거나 유혹한 자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자는 누구도, 동맹과 언약의 맹세에 서명하거나 그것을 갱신하도록, 혹은 이 교회의 어느 치리회에서든 어떤 직분이나 권한을 행사하도록 허락되지 않게 할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주의 만찬의 성례를 거행하기에 적합한 기회에 관하여 노회들에 통지하고, 그때에 필요하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권고를 보내는 일이 지난 총회로부터 우리에게 위임되었음을 고려하여; 우리는 노회들에 다음과 같이 통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겼으니, 곧 주의 만찬의 성례는 언약의 갱신 후에 목사들이 각자의 회중에서 형편이 닿는 대로 거행될 수 있으며; 또한 앞서 언급한 죄책에 연루된 모든 이는, 그들을 언약과 성찬 안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관하여 총회가 적합하다고 여기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주의 만찬의 성례에서 정지되어야 함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A. 커.

에든버러, 1648년 10월 14일.

신분 위원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맺고 맹세한 엄숙한 동맹과 언약의 여러 가지 위반에 있어서 이 땅의 통탄할 타락을 깊이 느끼며; 그러므로 공적인 죄와 격노하게 함, 특히 언약 위반에 대한 엄숙한 자백과, 그 안에 담긴 의무들을 더욱 양심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엄숙한 다짐과, 엄숙한 동맹과 언약의 갱신을 위한 총회 위원회의 시의적절하고 경건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그리고 진심으로 승인하노라: 또한 요구하고 규정하노니, 공적인 죄의 자백과 의무에 대한 다짐을 위하여 이달 6일자 법령에서 앞서 말한 총회 위원회가 준 지시들을 신중히 따를 것이며, 그들이 지정한 금식과 겸비를 경건하게 지킬 것이며, 엄숙한 동맹과 언약을 그들이 앞서 말한 법령에서 규정한 방식대로 진실하고 진심으로 갱신하고 서명할 것이다.

Extractum

토마스 헨더슨 씨.

© 2026 Westminster 1647 :: https://westminster1647.com/ko/correo